

광주·전남 추석민심이 대선 후보 결정한다

지역민들 높은 식견·판단력
대한민국 민주화 주춧돌 역할
호남 경선 결과 승부 분수령
지방선거 입지자들 ‘젠걸음’

국민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가을이 되고, 추수의 계절을 맞이 하면서 며칠 후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명절 ‘한가위’이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과 올해도 어김없이 코로나19로 인해 그러한 가족들을 서로 만나지 못할 형편이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추석 민심이 향후 정국에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대선을 불과 17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맞는 이번 추석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은 정치적 고비마다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한국정치를 리드해 왔다. 한단계 높은 식견과 판단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

추석 연휴 이후 25일과 26일 치러지는 광주·전남과 전북 경선이 민주당 경선의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12일 1차 슈퍼

위크까지 1주일간의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5연승을 거두며 53.7%로 과반에 성공했다. 이낙연 후보도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면서 배수진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32.46%를 득표 하고 있지만 마지막 승부처인 호남에서 극적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재창출에 올인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이낙연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호남 경선에서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호남은 전국 약 70만명의 권리당원 가운데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약 20만명이다. 서울 14만명, 경기 16만명보다 많다. 지역선거 경선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추석은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을 장악하기 위한 선방들이 민심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장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3월 대선 이후 불과 3개월만에 치러지는 데다 5월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실시된다는 데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지역정치권이 요동칠 수 있다. 중앙정치를 장악한 대선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주는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구정장 5명, 지방의원 91명, 전남은 전남도지사, 전남도교육감, 시장·군수 22명, 지방의원 301명을 각각 선출한다.

대선정국이지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이 추석을 기점으로 보폭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방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유력 후보나 새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6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윷놀이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롭게 진입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지 여부가 호남지역 경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확산 되면서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도 대전환의 시대를 겪고 있다.

기존 대면 선거운동과 집단행사는 사라졌다. 이

제 비대면 선거운동이 일상화 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과 접촉하고 있다.

탄탄한 조직과 인지도가 높은 현역 정치인들은 그나마 선거법 내에서 자유롭게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신의 얼굴 알리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정국 에서 광주·전남의 선택은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선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으며 대선 후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대선후보와 연계돼 있다”면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선거운동을 합리적으로 펼치는 후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귀성 20일 오전·귀경 21일 오후 ‘가장 혼잡’

오늘부터 6일간 휴게소 포장만 가능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특히 주요 휴게소 9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이동중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7~22일 6일간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접촉 관리가 강화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등 9곳에서 이동 중에 편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연휴 기간 중 20~22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3,226만명으로 추산된다.

하루 평균 이동량은 538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추석보다 약 16.4% 줄어든 것이다.

다만 하루 평균 이동량은 작년 추석보다는 약

3.5%, 올해 설보다는 31.5% 늘어날 전망이다. 또 귀성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는 혼잡이 예상된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20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1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귀경길에 차량이 몰리면서 차량 정체가 극심할 전망이다.

작년 추석과 비교할 때 주요 도시 간 평균 소요 시간은 귀성 방향은 최대 1시간 25분 줄어 들고, 귀경 방향은 최대 3시간 15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연구원은 귀성 때 평균 소요 시간은 서울→부산 5시간 30분, 서울→광주 3시간 50분, 귀경 때 평균 소요 시간은 부산→서울 8시간 40분, 광주→서울 8시간으로 각각 추정했다. /최환준 기자

한가위 특집 지면 안내

기획특집	8·9면
문화나들이	10면
극장가	11면
TV편성표	12·13면

추석 연휴날씨

18일(토) 19일(일) 20일(월) 21일(화) 22일(수)



추석 연휴 신문 쉽니다

행복한이름, 전남사랑도민증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등록기준지(원적 포함)를 전라남도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주소가 전라남도 이외인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신청방법

전라남도청 누리집 신청(온라인) 및 우편 신청
* 문의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출향도민지원팀/F팀 (☎061-286-7791~3)

혜택사항

전라남도내 협약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할인 또는 무료
* 전라남도청 누리집(전남사랑도민증 게시판)에 게재

검색창에

전남사랑도민증

검색